

인간과 같이 숨쉬는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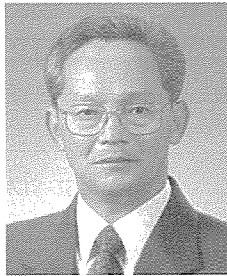
“다양한 계층서 정보평등 이뤄야”

인터넷은 1969년 미국의 국방성에서 시작한 알파넷(ARPANET)프로젝트가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알파넷 초기의 연구목적은 냉전시대에 소련의 공격으로 인해 통신통제센터가 파괴되더라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군사목적으로 운영되던 알파넷은 1986년에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흡수, 확대되어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연구전산망으로 변신하여 비영리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유용성을 깨달은 기업들이 인터넷에 참여하면서 현재는 민간기업이나 일반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고 1991년부터 웹(Web)이 나오면서 인터넷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말에 전 세계적으로 4억명이 사용하고 2005년에는 10억명 이상이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국민의 50% 이상이 활용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1년 6월 기준으로 2천2백만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전 인구의 50% 이상이 활용하게 되었고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도 6백만명을 돌파하여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가 마치



宋官浩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사무총장)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하듯이 세계 각국, 각종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컴퓨터를 통해 그 속에 담긴 각종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인터넷은 급속히 발전하고 방대해져서 구인·구직정보, 재테크정보, 건강상담, 각종 취미와 레저 등에 관한 국내의 정보까지 구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이나 신문도 인터넷을 통해 보내고 증권거래, 은행거래도 인터넷을 통해 각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인터넷은 이제 생활 속에 접목되어 우리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문화행사, 공연소식이 한눈에 들어오고, 예약까지도 바로 끝낼 수 있다. 여행정보와 레저정보 그리고 항공권, 호텔 등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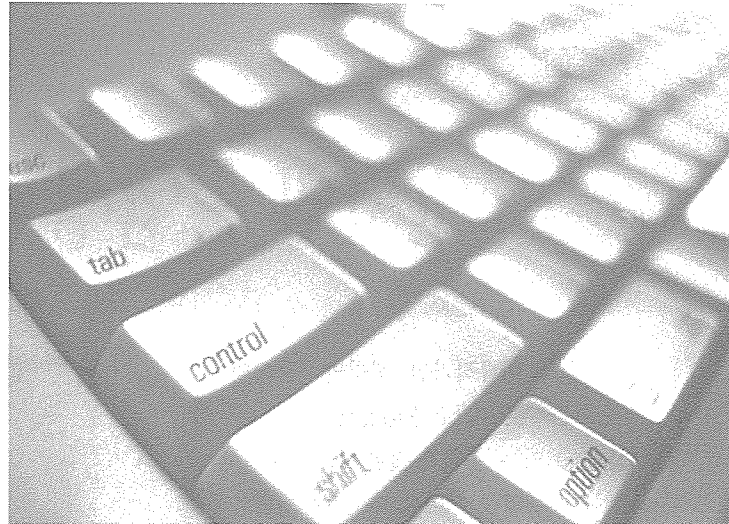
약시스템을 바탕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으며, 이외에도 호적등본, 토지대장 등의 민원서류를 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편한 노인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는 수고도 병원과 집에 연결된 원격진료시스템을 이용하면 진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쇼핑, 은행업무, 민원서류 발급 등 번거로웠던 많은 일들이 집 안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외국에 나가있는 자녀와 이메일(e-mail)이나 인터넷전화로 값싸게 서로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를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전자구매 등을 통한 물자구매, 업무자동화 등을 손쉽게 이룰 수 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의 구매, 판매, 경매 등을 할 수 있고 전자정부를 통하여 각종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으로 해결하여 매우 경쟁력 있는 정부조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초반부터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인터넷 열풍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게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어느 개인이나 기업, 국가도 새롭게 일고 있는 이 혁명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

1969년 미국의 국방성에서 시작한 알파넷프로젝트가
 호시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은 그 후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1991년 웹이 나오면서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미 전 세계에서 4억명을 돌파하고 있다.
 주부·노인층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인터넷이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간중심의 정보평등 사회가 구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변화와 발전은 이에 걸맞는 기술 및 정보소유, 활용에 따라 새로운 부의 창출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산출되는 반면, 극심한 부의 편중현상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강력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속히 파급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배제하고는 향후 어떤 분야도 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인터넷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노력이 전 국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디지털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터넷으로 우리 생활은 보다 안락하고 윤택해질 것이다. 하지만 수 많은 사이버 커뮤니티의 출현으로 집단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투쟁하게 되며, 글로벌화와 개인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개인, 가정, 사회가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등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악영향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주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나타나게 될 역기능들을 주의깊게 살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빠르게 발전함에 있어 두드러지게 대두되는 문제는 정보의 편중현상이다.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그들은 도태되고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부·노인층에 교육열풍

지난해 일기 시작한 주부들의 인터넷 교육 열풍은 인터넷에 관한 관심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는 정보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열의의 표출이었다.

정보화의 또다른 소외계층으로 노인층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층

에 대한 정보화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최근 노인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버넷운동본부가 전국 50여 대학과 함께 7월부터 10만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인터넷 무료교육은 현재 뜻을 같이 하는 학교와 기업의 관심 속에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주부, 노인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인간 중심의 정보평등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것이 요구된다.

인터넷 안에서 전 계층이 이해와 협조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할 때 사랑과 꿈이 깃든 사이버 세상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인간 중심의 인터넷 문화 정립이 이룩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진정한 인터넷 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